

# 노숙인의 삶의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김진주<sup>1</sup> · 박은영<sup>2</sup> · 현명선<sup>3</sup>

아주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sup>1</sup>, 상지대학교 간호학과<sup>2</sup>,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 간호과학연구소<sup>3</sup>

## A Phenomenology Study of the Lived Experience of Homeless Persons

Kim, Jin Ju<sup>1</sup> · Park, Eunyoung<sup>2</sup> · Hyun, Myungsun<sup>3</sup>

<sup>1</sup>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Suwon

<sup>2</sup>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Sangji University, Wonju

<sup>3</sup>College of Nursing ·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Ajou University, Suwon,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lived experiences of homeless persons. **Methods:** A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was used for the study. Participants were people enrolled in the Center for homeless persons in Kyunggi Province and eligible for the study.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nine participants between October 13 and November 16, 2016.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Colaizzi's method. **Results:** Five themes and twenty meanings were formulated for experiences of homeless persons. The five themes were 'Abandoning their life', 'Being familiar with a free homeless life', 'Being isolated from the world', 'Being impoverished', 'Desire to break away from the life of homelessness'. **Conclusion:** The study results suggest the need for a holistic understanding of the essential structure of the lived experiences of homeless persons. Mental health professionals need to understand the homelessness experiences from the client view and to develop programs that can help homeless persons reintegrate into the community.

**Key Words:** Homeless person, Life, Qualitative research

##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노숙인 문제는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 이후 실직으로 인한 개인의 경제적 빈곤과 가족 해체로 대두하게 되었으며, 이는 주요 사회구조적 문제로 확대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1,2]. 노숙인이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지 없이 생활하거나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며 생활하는 사람 또는 적절한 주거지로 기능하지 못하는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다[3].

2015년 기준 쪽방주민(6,072명)을 제외한 노숙인은 총 11,901

명이며 이중 거리노숙인은 1,125명으로 대부분 노숙인 시설과 같은 불안정한 주거시설에 일시적으로 거주하고 있어 실제 노숙인의 수는 정확한 추정이 어렵다. 이에 정부는 노숙인 자립 지원 법률 제정과 복지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숙인은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고 크게 감소하지 않는 추세이다[4]. 일정한 주거지가 없다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데 안정된 기반의 상실을 의미하며[5], 이로 인해 노숙인에게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수반된다. 노숙은 알코올과 약물 남용, 정신질환 등과 같은 개인의 신체적 · 심리적 요인부터 실업과 고용불안 심화로 인한 부채, 신용불량 및 가정 파탄의 문제로 이어지는 사회구조적 요인까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노숙

**주요어:** 노숙인, 삶의 경험, 질적 연구

**Corresponding author:** Hyun, Myungsun

College of Nursing ·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Ajou University, 164 World cup-ro, Yeongtong-gu, Suwon 16499, Korea.  
Tel: +82-31-219-7014, Fax: +82-31-219-7020, E-mail: mhyun@ajou.ac.kr

Received: Feb 2, 2017 | Revised: Feb 25, 2017 | Accepted: Mar 3, 2017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인의 사회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1,2,6].

노숙생활을 기점으로 노숙인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면서 가족과 지인들에게 멀어지고 같은 공간에서 다른 존재로 새로운 세계에 진입하여 살게 된다. 이들은 단조로운 일상생활을 살면서 사회적으로는 기피나 혐오 대상이 되고 직업생활에서 배제되어 마치 사회의 병적 존재로 인식되기도 한다[6]. 또한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의 생활과 불균형적인 영양 섭취로 인해 신체적 질환에 이환될 위험이 높고 제한된 의료 서비스 접근으로 인해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지 못하는 실정이다[1,7]. 노숙인은 신체적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알코올과 약물 남용 문제[1,8], 우울증[1,2], 욕구좌절로 인한 분노와 스트레스, 무력감[1] 등 정신적 건강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신체·정신적 문제는 노숙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지지와 관계망이 상실되고 정상적인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을 어렵게 한다. 반면에 주변 노숙인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노숙의 관계망에 의존하고 노숙에 적응하여 반복적인 노숙의 이탈과 진입을 경험하게 되며[2] 삶을 변화시킬 체계적인 교육의 기회마저 얻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를 수반하기도 한다[6].

이에 정신건강 전문가는 노숙인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노숙인의 신체·정신적 건강상태를 증진시키고 성공적 재활과 자활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1].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노숙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간호 분야에서 국내 연구는 노숙인의 건강관리실태와 건강 기능과의 관련요인을 파악한 연구[9], 국외 연구는 의료제공자 관점에서 본 노숙인의 건강 요구와 의료서비스 접근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10],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노숙인의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과도기동안 경험을 탐색한 연구[11] 등이 있다. 타 분야에서는 노숙의 발생원인과 문제, 위험요인에 관한 실태 분석 연구가 주를 이루며[7,8,12], 노숙인을 생계형, 가출형, 실직형으로 구분하여 유형화한 연구[13], 노숙인의 특성과 관련한 상관관계 연구[2], 노숙인 자립을 위한 교육의 가능성 연구[6]가 있었다. 하지만 노숙인이 신체적 건강과 심리사회적 건강 측면에서 취약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간호 분야에서 수행된 노숙인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으로[1], 특히 대상자 모집과 접근성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노숙인의 경험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구한 연구는 미비하다. 다만, 노숙인의 경험에 관한 연구는 청년 노숙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5]에 그치고 있다. 서구에 비해 일본과 한국은 노숙인의 연령이 고령이며 알코올이나 약물 의존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선행연구[14]에서 지역이나 문화적 배경에 따라 노숙인의 특성과 삶의 경험은 다르다는 점을 시

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국내 노숙인의 경험은 다른 나라의 노숙인의 경험과 달리 독특한 의미와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 상황에서 노숙인이 경험하는 삶을 이해하고 그 경험을 통한 의미를 파악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지역사회에서 노숙인에게 제공하는 건강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장애요인은 전문가의 노숙인 삶에 대한 이해 부족과 노숙인 문화에 대한 민감성 부족이라고 지적되고 있다[10]. 이에 노숙인의 관점에서 노숙인의 삶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경험의 본질과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노숙인의 신체·심리사회적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개별적이고 통합적인 중재를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상학적 연구는 대상자의 살아있는 경험을 그들의 주관적 관점에서 생생하게 기술하고 그 경험의 본질적 구조와 의미를 확인하는데 적합한 방법이다[15]. 이에 본 연구는 노숙인의 삶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참여자의 주관적 관점에서 파악된 살아있는 경험의 의미를 규명하고 노숙인의 삶의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밝히하고자 Colaizzi 분석방법[16]을 적용해서 탐색하고자 한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노숙인의 삶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 삶의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밝히는 것이다.

## 연구 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노숙인의 삶의 경험이 무엇인지 의미를 파악하고 본질적 구조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현상학적 접근방법 중 Colaizzi 분석방법[16]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 Colaizzi 분석방법은 연구참여자 각 개인의 독특성보다는 참여자 전체의 공통적인 속성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참여자의 관점에서의 경험의 의미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15]. 이에 Colaizzi 분석방법은 본 연구가 노숙인의 관점에서 그들의 삶의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고 본질적 구조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 있기에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13].

### 2.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노숙 경험이 최소 1년 이상인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노숙인의 특성상 사회적 노출을 거부하거나 꺼리는 성향이 있어 참여자 모집과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K 지역에 소재하는 노숙인 종합 지원센터에 등록된 노숙인을 편의 표출하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참여자 선정기준은 한국판 간이정신상태검사(Mini-Mental State Examination-Korea, MMSE-K)에서 총 점수가 24점 이상이며, 심층면담 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없고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한 자로 하였다. 자료가 포화될 때까지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총 참여자는 9명이었다. 참여자의 연령은 35~73세였으며 성별은 모두 남자였고 노숙기간은 1~25년이었다. 교육 수준은 중졸 1명, 고졸 6명, 중 고등학교 자퇴 2명이었고, 임시거처는 고시원 7명, 여관 1명, 병원 입원 1명이었고 9명 중 3명이 알코올 문제가 있었다(Table 1). 연구참여자 모두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없었고 인지 기능 평가 결과 K-MMSE 점수는 28~30점이었다.

### 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 본 연구진이 노숙인 종합 지원센터의 센터장과 담당직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연구참여자 모집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연구책임자가 참여자를 만나 본 연구의 목적과 자료수집 절차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그리고 연구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참여자로부터 연구참여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받은 후 연구자 1인이 개인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을 진행한 연구자는 정신보건전문요원(1급)으로 다년간 정신과 병동에 근무하면서 정신건강문제를 가진 환자들과의 면담 및 상담 등 풍부한 경력을 지니고 있다. 현재 박사과정 중에 있으며, 질적 연구에 대한 강의를 수

강하였다. 면담은 센터에서 마련한 빈 방에서 진행하였으며, 연구참여자의 비밀유지와 안정을 위해 ‘면담 중’이라는 안내문을 출입문 앞에 부착하여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10월 13일부터 2016년 11월 16일까지였다.

본 연구진은 사회에서 노숙인에 대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태도나 편견 등을 인식하고, 배제하고자 하였으며 참여자의 관점에서 노숙인의 삶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참여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하면서, 노숙인의 삶의 경험이 어떠한지에 대한 이야기 하도록 하였으며, 풍부한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 면담 과정 속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지지하였다. 노숙인의 삶의 경험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된 주 질문은 “노숙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지게 된 경험은 무엇입니까?”이었으며 면담 현장에서 참여자로부터 나온 반응을 통해 질문을 추가하거나 표현 내용을 따라가는 형식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내용 중 참여자에게 확인해야 하거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에서는 참여자에게 질문하여 참여자가 진술한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면담을 하면서 참여자의 비언어적 표현 등에 대해 메모를 하였으며, 면담을 마친 후에는 면담과 관련된 연구자의 생각이나 느낀 점 등에 관해 기록하였다. 면담 시간은 참여자에 따라 30~10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면담 횟수는 1~2회였다. 면담 종료 후 참여자에게 소정의 현금을 제공하였다. 면담내용은 참여자의 동의를 받은 후 모두 녹음하였으며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를 위해 연구 보조원이 녹음된 진술내용을 그대로 모두 필사하였다. 본 연구진 모두 필사된 내용을 수차례 반복하여 상세하게 읽었으며, 새로운 내용이 발견되지 않고 면담자료가 충분히 포화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면담자의 참여자에 대한 면담을 종료하였다.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ID	Age (year)	Education	Religion	Marital status	Duration of homelessness (year)
A	35	High school	Christianity	Never married	2
B	61	Elementary school	Christianity	Never married	13
C	73	High school	Catholicism	Married	8
D	42	Middle school	None	Never married	25
E	62	High school	Christianity	Married	10
F	60	High school	Christianity	Divorced	10
G	60	High school	Christianity	Divorced	10
H	41	Middle school	Buddhism	Never married	2
I	55	Middle school	Christianity	Never married	1

####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Colaizzi [16]가 제시한 분석단계에 따라 진행하였다.

첫째, 면담을 진행하면서 기록한 메모 및 현장일지와 필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었다. 또한 녹음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본 연구의 관심현상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과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둘째, 참여자가 기술한 내용 중에서 본 연구의 관심현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구절이나 문장에 밑줄을 그어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하였다. 셋째, 의미 있는 진술에 해당되는 문장이나 구절을 숙고하면서 읽었으며 의미 있는 진술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발견하여 연구자의 언어로 구성된 의미를 도출하였다. 넷째, 구성된 의미에서 유사한 것을 묶어 주제를 도출하였다. 다섯째, 주제에 대한 통합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 주제를 관심현상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기술하였다. 여섯째, 가능한 본질적 구조를 명확하게 기술하기 위해 관심현상에 대한 공통적인 요소를 통합하여 본질적 구조를 기술하였다. 일곱째, 본 연구의 관심현상에 대한 본질적 구조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2명의 참여자에게 연구자가 분석한 내용이 참여자가 표현하고자 했던 의미나 경험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3인으로 구성된 본 연구진이 면담자료를 필사한 자료를 함께 읽었으며, 의미있는 진술을 확인하고,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합의를 하였으며, 주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도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논의를 하였다.

####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 진행 전 책임연구자가 속한 대학의 기관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연구수행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IRB-SBR-SUR-16-326).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노숙인으로 인권보호와 비밀유지가 요구되는 취약집단이기에 때문에 윤리적 고려가 중요하다. 이에 참여자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연구참여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본 연구진이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과정에 대해 설명을 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노숙인으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았다. 또한 참여자로부터 수집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할 것이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사생활 보호와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공개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면담을 그만 두거나 연구참여를 중단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음을 명확히 설명하였다. 특히 녹음된 자료는 연구 책임자의 컴퓨터에 보관되며,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임을 다짐하였으며, 연구가 종료되면 폐기할 것을 설명하였다.

#### 6. 연구의 엄격성과 신뢰성 확보

자료분석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Sandelowski [17]가 제시한 질적 연구의 평가기준에 따라 신뢰성, 적합성, 감사가능성, 확인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첫째, 신뢰성을 위해 본 연구진이 필사된 내용을 검토하고 노숙인의 삶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진술, 의미 구성, 주제 도출에 도달할 때까지 논의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 수행에 경험이 많은 간호학 교수 2인과 노숙인 센터에서 10여 년간 근무경력이 있는 전문가 2인으로부터 분석결과에 대한 자문과 확인과정을 가졌다. 둘째, 적합성을 충족하기 위해 분석한 내용을 연구참여자 2인에게 보여주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본 연구진이 구성한 의미와 도출한 주제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였으며, 일부 주제에 대해 참여자의 의견에 따라 주제명을 수정하였다. 셋째, 감사가능성을 충족하기 위해 현장일지 및 메모를 기록하였으며, 연구 상황에 대한 기록, 자료분석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고자 하였다. 넷째, 확인가능성을 충족하기 위해, 대상자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관심현상을 탐색하기 위해 연구자의 편견이나 태도에 대해 판단중지를 하고 가치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 연구 결과

본 연구결과 9명의 참여자로부터 얻은 원자료에서 총 153개의 의미 있는 진술이 추출되었다. 의미 있는 진술로부터 20개의 의미를 구성하였다. 20개의 구성된 의미를 바탕으로 의미를 조직하고 통합하여 5개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참여자들이 노숙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진 경험은 삶의 의미를 놓아버림, 얽매이지 않은 삶에 빠져버림, 외부세계로부터의 고립, 인간다움의 상실, 노숙에서 벗어나고픈 바람 등으로 나타났다(Table 2).

#### 1. 주제 1. 삶의 의미를 놓아버림

주제 1은 ‘삶의 의미를 놓아버림’으로 본 주제에 포함된 구성된 의미는 ‘막다른 상황에서 노숙에 접어들’, ‘살 수 있는 발판이 없음’, ‘삶에 있어서 꿈을 버림’, ‘삶의 밑바닥에 놓임’, ‘살



**Table 2.** Formulated Meanings and Themes

Formulated Meanings	Them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mbarking on homelessness due to a dead-end situation</li> <li>• Affording no hold for them to take</li> <li>• Throwing out their dream in life</li> <li>• Going downward in life</li> <li>• Being unable to give vigor to themselves</li> </ul>	Abandoning their life meaning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ifficulty breaking away from homeless life due to being familiar with free life</li> <li>• Being too lazy to work</li> <li>• Lacking the concept of daily time</li> </ul>	Falling through the free homeless lif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hutting themselves off from the world</li> <li>• Being alone throughly in sick</li> <li>• Severing all contact with their family intentionally</li> </ul>	Being isolated from the worl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reaking down of their body</li> <li>• Being hurt due to getting the eye from others</li> <li>• Disregarding the duty as a human being</li> <li>• Having no a comfortable space of their own</li> <li>• Being anxious due to no prolong housing</li> </ul>	Loss of human being dign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aving an opportunity to think of themselves</li> <li>• Desiring to get back up again</li> <li>• Wanting to live a normal life as others</li> <li>• Hoping to stand on their own feet</li> </ul>	Desire for breaking away from the homelessness

아가는데 필요한 힘을 복돋을 수 없음'이었다.

참여자는 경제적인 파산으로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가족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 집을 나오게 된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자살까지 생각하지만 끝내 죽지 못하고 다른 방법이 없어 막다른 길목에서 노숙생활로 접어들게 된다.

그냥 수원 가서 뛰어내릴 생각으로 다 버려버렸어요. 짐 같은 거, 시계도, 고가인 것들도 다 버리고요... 독한 맘 먹고 술 만땅 취해가지고 한번 뛰어내릴 생각으로 했는데, 술이 안 취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공사장에서 자다가 이진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러다가 노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참여자 A)

다 누구나 그래요. 호\*이도 그렇고 윤\*이도 그렇고 다 얘기를 많이 해보면 다 안 되고 실패하고 자살 결정을 했다가 그게 이제 안 되고 안 되고 하다가 노숙을 하고... 다 변천사가 있어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자살을 결정하는데, 그게 안 되고 여러 가지 하다보면(결국은) 자꾸 이제 노숙으로 가죠. 노숙생활에 접어들게 되지요.(참여자 H)

참여자는 노숙생활을 하는 자신이 처참하고 비참하다고 느끼지만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발판이 없어 그 상황에 주저앉게 된다. 삶에 있어서 꿈을 버리게 되고, 인생의 가장 밑바

닥에 놓이게 됨을 인지하게 된다. 그 생활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보지만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을 복돋아주지 못해 삶의 의미를 놓아버리면서 자포자기한 상태로 노숙생활을 지속한다.

처참했어요... 남한테 돈을 남의 돈을 빚지는 게 비참해 보이고 내 자신이 이리저리 못해 가지고 산다는 게 처참했죠. 발판이 없으니까. 딛고 일어설 발판이 없으니까 힘들었죠... 그러니까 꿈이 없이 노숙생활에 져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엔 꿈이 없어지는 게 무슨 계획이 없고, 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얘기하는 것들이 꿈이 없어 꿈이...(중략) 대한민국에서 이 생활이 최고, 인생 최고 밑바닥 아니예요. 여기서 더 떨어질 데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할 거 주고 할 때 자리를 잡아가지고 하나씩 한 계단씩 줄을 잡아서 올라가면 빠져나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꿈이 없고 그렇게 산다는 생각 없이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끝내고 돈 있으면 술도 사먹고 저녁 때 밥 주면 밥 먹고. 술 먹고 아무데나 들어가고, 그리고 아침에 또 눈 뜨면 밥 주고 또 구걸해가지고 돈 주면 1, 2천원 그거 또 술 먹고. 그 일요일 되고 그러면 교회 가가지고 용돈 받아오고.(참여자 E)

어디 뭐 일을 하고 누굴 만나고 이런 생활이 아니니까

계속 그냥 무의미하게 밤 되면 하루 가는구나... 이 시간이 너무 아깝거나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아깝진 않죠. 빨리 시간이 가서 이 세상에서 떠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엔. 빨리 세월이 흘러라(중략) 자신이 없는 거죠. 그니까 스스로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 몸 상태로 무슨 일을 하겠냐? 접어 버리자 접고 노숙을 하게 되니까 먹는 거 이런 거 도와주고 하니까 일단 요기는 때우니까 옛날처럼 굶는 게 아니니까 밥을 먹으면서 이래저래 내가 생각해도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내가 도움을 줄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시간만 가다보니까 노숙 생활을 2년을 했거든요.(참여자 H)

## 2. 주제 2. 엽매이지 않은 삶에 빠져버림

주제 2는 ‘엽매이지 않은 삶에 빠져버림’으로 본 주제에 포함되는 구성된 의미는 ‘노숙의 자유로움에 익숙해져 벗어나기 힘들’, ‘익숙해진 나태함으로 일하기 싫음’, ‘일상의 시간 개념이 없어짐’ 등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노숙생활이 지속되면서 지켜야 하는 규정이나 기준이 없는 자유로운 노숙생활에 익숙해져 구조화된 환경이나 규정이나 기준이 있는 체계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워 아무 것에도 엽매이지 않은 노숙생활에 빠져버려 벗어나기가 힘들게 된다.

저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노숙하면서 부산에서 처음에 ‘쉼터’라는 곳을 알았거든요. 막상 부산 쉼터에 오라고 했는데 부산에서 노숙하지 말고 쉼터로 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가지게 되요 스스로가... 그런 생활이 이제... 노숙을 하다보면 생활이 자유롭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차라리 자유로운 이 생활이 더 익숙하게 되더라고요(참여자 H)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엽매이지 싫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게 이런 데 오면 단체생활 해야 되고, 또 술 같은 걸 먹을래도 여기 들어와선 못 먹고... 그런데 이 사람들 대부분이 서로 십시일반 얼마씩 내놓고 술 먹다 보니까 계속 그 생활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노숙하러 나가서 이렇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자식이 알까 겁나고 모든 게 다 겁나는데... 그러는 자기 자신이 마음을 다독여가지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할 생각은 없고 거기서 그냥, 한번 거기에 주저앉으니까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그 노숙, 노숙이라는 데에서 처음에 3년이 고비예요. 3년이 넘어가면 절대 못 빠져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참여자 B)

또한 참여자들은 무료급식소를 전전하면서 끼니를 해결하고 잠을 재워주는 곳을 다니는 생활을 지속하면서, 자신이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기에 나태함에 익숙해져서 힘들게 일하는 것을 싫어하게 된다. 노숙생활을 시작하면 그 생활에 빠져버리게 되어 마치 중독된 것처럼 벗어나기가 힘들게 된다.

이 노숙자들이 좀 나태한 면이, 나태한 게 일을 시키면 안할라 그러고 하다보니까 그래요.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그래요. 밥 주고 잠 재워주고 하니까 아쉬운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편한 게 노숙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노숙자가 무슨 뭐 부양할 가족도 없고 또 그러다보니까 나태해지는 거예요.(참여자 C)

중독이에요. 결국은. 노숙도 중독이고 안 그러면 노숙은 자기 임의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노숙하는 거예요. 어디에 구속 안당하고. 술 먹고 싶으면 자기 맘대로 술 먹고 자고 싶으면 자기 맘대로 막 자빠져 자고 막 이러니까 사람이 나태해지잖아요.(참여자 B)

힘든 일을 안 할라고 그러고. 힘든 일을 하면 어디 가서 일주일도 못 버티고 돌아온단 말이예요. 그리고 이제 공공근로 같은 거 쉬운 거, 편한 일 그런 거나 하려고 그러고 어떨 땐 청소일도 쉬운 건 하려고 그러지, 정신 상태가 썩었다는 얘기에요.(참여자 E)

참여자는 노숙생활이 지속되면서 일반인들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시간 개념이 없어진다.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잠을 잔다거나, 식사를 한다거나, 무엇을 해야 한다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또한 무슨 일을 하고 싶거나, 무슨 일을 해야 한다는 동기화도 없이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

예, 다르죠. 시간 개념이 없죠. 약속시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뭐 규칙적인 몇 시에 자야 된다는 것도 없고 그냥 때 되면 자는 거고 어디 공원 벤치에 앉아서 피곤하면 자는 거고. 시간 개념이 없죠. 별 생각을 안 하죠. 그냥 오늘도 하루 가는구나. 저녁때면 ‘아 오늘도 하루가 가네’ 아침에는 ‘또 하루가 시작 되네’ 그냥 그게 답니다. 또 시간되면 급식소가서 밥이나 얻어먹자, 남은 시간이 많으니까 공원에 앉아서 한숨 자고... 해가 어두워지면 역전에 가면 요즘에는 또 제가 노숙을 하면 교회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거기서... 또 먹으면 또 한 끼 때우면 아, 오늘 한 끼

때웠구나 하죠.(참여자 H)

### 3. 주제 3. 외부세계로부터의 고립

주제 3은 ‘외부세계로부터의 고립’이며, 본 주제에 포함되는 구성된 의미는 ‘세상과 담을 쌓음’, ‘아플 때 철저히 혼자가 됨’, ‘의도적으로 가족과의 연락 회피’ 등이었다.

참여자들은 노숙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실패하고, 이러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남들 앞에 나설 자신감이 없어 바깥 세계에 있는 사람과 부딪히거나 이야기 나누는 것을 싫어하여 세상에 대해 담을 쌓는 등 외부세계와는 고립된다.

근데 못 빠져나왔어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빠져가 나려고 노력하다가 또 자빠지고... 그렇게 노숙하면서... 한번 나가려고 노력을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또 실패하고... 자신에 대한 비애라든지 굉장히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보게 되고...그래서 바깥사람과 부딪히기 싫어 일도 안 하게 되고 세상에 대해서 자꾸 담을 쌓죠.(참여자 F)

네, 매일 있으니까 직원이 얼굴도 알고 하나까. 컴퓨터 그냥 꺼놓고 몇 시간 자게는 해주는 데... 그런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이 더 뭐라고 해야 되지... 밖에 나가는 거를 꺼려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좀 자신 없어지고 더 은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증상이 발생하더라고요. 자신감이 일단 너무 많이 부족해지고 혼자 계속 있다 보니까 말도 안하게 되다 보니까 소통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아~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참여자 G)

참여자들은 노숙을 하면서 가족과의 만남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노숙인이 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고 부끄럽고, 가족에게 피해를 줄까봐 의도적으로 가족과의 연락을 회피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가족과의 연결부재는 외부세계와의 고립상태를 더욱 견고화시킨다.

아버지가 보고 싶긴 한데 가면 민폐 될까봐... 제가 장남이고 하나까 기대치도 있을 것 같은 데 거기에 장가도 못가고 그냥, 그기대에 많이 못 미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아버님 걱정하실 까봐 오히려 더 전화를 못하겠어요. 좀 안정적이게 되면 가 볼까 하고. 좀 안정적이어야 되지. 좀 자리도 잡고 해야 집이 생긴다고 해도 바라는 못 같 것 같아요.(참여자 A)

그런데 이 생활하면요 그렇게 되요. 내가 부끄러우니까 안 만나는 거예요. 언제 돌아갈지 그거는 내가 뭐 잘 모르겠어요. 내가 뭐 때가 되면 가겠죠. 집이 되면 안 되죠. 집이 되면 안 돼요.(참여자 C)

참여자들은 외부세계와의 고립을 신체적으로 아플 때 더욱 철저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아플 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거들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며, 외부세계로부터 고립됨을 실감한다.

몸이 아플 때요. 몸이 아프면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해요. 그 같이 노숙하는 사람들, 그 친구들한테 얘기 해봐요 그 사람들은 어휴 어떻게 약 먹고 좀 그래야 몸조리 잘하지 이러는데 혼자 있다 보니... 그게 참 너무. 누구한테 진짜 그 어떻게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이제. 전 오로지 혼자예요.(참여자 B)

### 4. 주제 4. 인간다움의 상실

주제 4는 ‘인간다움의 상실’로 본 주제에 포함되는 구성된 의미는 ‘신체적으로 몸이 망가짐’, ‘다른 사람의 차가운 시선으로 상처받음’,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무시함’, ‘편안한 나만의 공간이 없음’, ‘일정한 거처부재로 불안함’이었다.

참여자들은 노숙생활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심리적인 어려움을 술에 의지하여 해결하고자 한다. 열악한 환경과 불량한 영양상태에서 음주는 참여자의 건강상태를 더욱 악화시킨다.

무섭고... 집이 없다는 자체도 무섭고 사람이 무섭고... 그러다보니까 술에 자꾸 의지하게 되고 내가 2년 동안 노숙하는 형님들도 많이 알았는데 다 원인이 가정불화도 있겠고... 겨울엔 추우니까 알코올로 또 술을 먹으면 아무래도 몸에 열이 나잖아요? 그리고 또 두려움도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술에 의지하게 되고 사람들이 자꾸 망가지고...(참여자 H)

참여자들은 노숙생활을 지속하면서 점점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도리를 무시하고 최소한의 기준도 지키지 않는 등 뻔뻔해지고, 양심을 상실한 사람으로 변화하게 됨을 느끼고 있었다.

노숙하면서 이게 참, 얼굴에 많이 철판이 깔렸어요. 뻐뻐해지고.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전에는 그 뭐지 소극적이었어요. 성격이 그랬는데 노숙하고 나서부터 저도 많이 뻐뻐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기 뭐냐 양심이 없어요, 노숙을 하는 사람은. 양심이 올바른 사람이 별로 없다고요. 왜 그러냐면 공짜, 이 전철 같은 것도 누가 돈 내고 타나요? 도둑. 도둑차 타지요. 그리고 역무원한테 돈 내 놓으라고 걸리면, 나 돈 없다고 배 째라고 이러는테요 뭐, 힘들어요.(참여자 B)

참여자들은 외부에서 자신의 존재를 노숙인으로만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을 느끼면서 서러움을 느끼고 상처를 받는다고 하였다.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 사람은 게을러서 일을 안 하는구나, 저 사람이 젊은 사람이 일을 하지... 몸이 아파서도 일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연이 많은데 처음에 딱 보자마자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 노숙자들은 전부 술 먹는 줄 알고 노숙자들 다 술 안 먹는 사람도 많아요...(참여자 H)

제가 어떻게 하다보니까, 운전면허증을 따게 되었는데... 근데 강사들이 타잖아요. 그래서 타면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나를 노숙인으로 보나... 합격하면 면허시험장 가잖아요. 면허 시험장 가면 옆에는 앉아 있지 않아요, 그럼... 다 쳐다보는 거예요... 째려보는 사람, 이렇게 보면, 속으로 왜 쳐다보지? 보는 애가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 아이가 '엄마, 왜 저 사람 노숙인인가? 더럽지, 머리 깨끗하지 않지?' 그 엄마가 '몰라'하면서 가자하고 가버렸어요. 그 때 기분이 확 나쁘더라구요.(참여자 D)

참여자들은 마음을 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며, 빈 건물에서 잠을 자다가 신고가 되어 경찰서에 가기도 하는 등 잠을 편안히 잘 수 있는 집이 없어 하루하루 잠잘 곳을 찾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는 등 고유한 인간으로서 유지되어야 하는 인간다움을 상실한다.

일단은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쉬고 싶는데 그럴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단침입으로 제가 경찰서에도 간 적도 있고 빈 건물 안에 들어가서 자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구치소도 몇 번 간 게 한 이틀인가... 갔는데 그렇게도 가보고 하니까 정작 제가 필요한 집

이 있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급할 때는 집이 있으면 돈 이 없어도 쉴 수 있는데...(참여자 G)

그냥. 오로지 잠만 자고 그러다 인제 그것도 오래 살다 보니까 결국은 걸리더라구요. 그래서 노숙인이라는 게 항상 불안해요. 언제 쫓길지 모르고 언제 누구한테 들킬지 모르고...(참여자 B)

## 5. 주제 5. 노숙에서 벗어나고픈 바람

주제 5는 '노숙에서 벗어나고픈 바람'으로 본 주제에 포함되는 구성된 의미는 '자신에 대한 성찰기회를 가짐', '다시 일어서고 싶음', '남과 같은 평범한 삶을 살고 싶음', '스스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음'이었다.

참여자들은 노숙을 하면서 자신의 삶이나 자신의 성격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에게 노숙의 원인과 책임이 있음을 인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자신에 대한 성찰기회를 가짐으로써 노숙생활에 빠져있어 헤어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노숙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바람이 짙게 된다.

네. 철이 없었죠 그때도. 철이 없다가 노숙하고 나서 철 들고 많은 걸 이제 많은 걸 깨닫고 이 인문학하면서 참 그게 예전 되돌아보고 막 하다보니까 참 잘못된 게 제가 다 잘못해서 이 지경까지 온 거지 남 탓할 거 한 개도 없더라고요, 보니까.(참여자 B)

철이 든다는 건 부모님이 예전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놈의 성질 때문에 그냥 끝이끝대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또 어르신들이 이렇게 해라 하면 에이씨 뭘 얼마나 안다고 남한테 그렇게 뭘 가르치려고 하느냐 막 이런 것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는 것도 많이 줄어 들었구요.(참여자 B)

또한 참여자들은 노숙생활을 지속하면서 '건강상태가 돌아오니깐 욕심이 생긴다', '다시 한 번 해 보아야겠다', '나에게 희망이 있을까?', '나도 한번 해보자, 이제 희망을 갖고 해보자'고 말하는 등 노숙에서 벗어나고픈 바람이 조금씩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어떻게 보면 누구든지 노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목숨 여기서 끝까지 갈 수 없잖아, 여기서 제가 나이도 있기 때문에... 꽃동네가 먹고 살기에는 괜찮아요. 근데 일을 안 시켜요 거기요. 그래서 나가겠다고. 왜 나가냐 그래서.



어떻게 나는 용접일하는 가장으로서 가정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살 수 없다. 나가서 다시 한 번 해봐야 되겠다. 나가야 되겠다. 나가면 뭐가 되느냐? 아니 되고 안 되고는 모르겠고 부딪혀 보는 거다. 어차피 노숙까지 했는데 다른 걸 못하겠느냐....(참여자 C)

어떻게 하다보니까 이까지 왔는데. 고시원에 살면, 산다는 게. 나도 희망이 있을까? 하다가 나도 희망이 있겠지. 하면 되겠지. 속으로 이 말 하거든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긍정적 마인드를 줌. 옛날하고 많이 바뀐 거죠, 하다보니까. 이제 택시요, 그거 하려고 책 한 권 사가지고 보고 있어요... 제가 일용직 근로자 시절, 하다보니까 지치고. 그럴 때 하다보니까 좀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이런 생각하다가도 좀 이제 희망을 갖고 해보자.(참여자 D)

참여자들은 가족을 이루고 싶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소망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사회에서의 규준에 맞추어야 하는 상황을 피하거나 일을 하기 싫어하는 등 나태함에 빠져있으면서도, 국가의 몇몇한 시민의 일원으로 살고 싶다는 바람에 대해서도 말하였다.

네, 네, 92년도에 좋아했던 그 선배는 결혼해서 살고, 난 나 혼자 이렇게 있고. 그러다보니까 가정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내가 결혼을 한다면 아내랑 커피한 잔하면서 얘기하고 이렇게... 부모님이 대화가 없었어요, 항상. 저는 가정을 이룬다면 대화하고 내가 잘못하면 잘못된 점 같은 거 얘기할 거 얘기하고, 그런 게 저의 소박한 꿈이죠.(참여자 D)

바람은 신용회복하고 그냥 평범한 직장 다녀가지고 가정 꾸려가지고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빚 안지고... 이번에 사업하는 것 때문에 빚지는 것 때문에 노숙까지 받을 들었으니까 이제 회복이 되면 평범한 일상으로 그냥 돌아가고 싶다.(참여자 A)

성공해야죠, 그래야만 내가 그 사람들한테 가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나도 몇몇하게 진짜 국가에 세금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할 것 아니에요.(참여자 B)

#### • 철저한 기술(exhaustive description)과 본질적 구조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참여자들이 노숙생활을 하면서 가진 경험에 대해 철저한 기술(exhaustive description)을 하면 다음과 같다. 참여자들은 경제적인 파산으로 배우자와 이혼하여 가족이 해체되거나 가족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 집을 나오게

된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죽음을 생각하지만 다른 방도가 없어 막다른 길목으로 몰린 상황에서 노숙생활로 접어들게 된다. 참여자들은 노숙생활을 하는 자신이 처참하고 비참하다고 느끼지만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발판이 없어 주저앉게 되고, 삶에 있어서 꿈이 없어지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놓이게 됨을 인지하게 된다. 그 생활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보지만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힘도 복돋아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삶의 의미를 놓아버리게 된다.

참여자들은 어떤 기준이나 규정에 따르는 것이 어려워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노숙생활에 빠져버려 벗어나기가 힘들게 된다. 또한 무료급식소를 전전하면서 끼니를 해결하고 잠을 재워주는 곳을 찾아다니는 생활을 지속하면서, 나태함에 익숙해져서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싫어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노숙을 하면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져서 외부 세계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하고 세상에 대해 답을 쌓게 된다. 또한 가족과의 만남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노숙인이 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고 부끄럽고, 가족에게 피해를 줄까봐 의도적으로 가족과의 연락을 회피하는 등 외부세계와 고립된다. 이러한 외부세계와의 고립은 신체적으로 아플 때 더욱 철저하게 실감한다.

참여자들은 노숙생활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을 술로 해결하는 것이 반복되어 술에 의지하게 된다. 이에 몸이 신체적으로 망가지게 됨을 인지한다. 또한 노숙생활을 지속하면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도리를 무시하며 뻔뻔해지고, 양심을 상실한 사람으로 변화한다. 그리고 외부인들이 자신을 노숙인으로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을 느끼면서 서러움을 느끼고 상처받는다. 참여자들은 자신만의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며, 잠을 편안히 잘 수 있는 집이 없어 하루하루 잠잘 곳을 찾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는 등 인간다움을 상실한다.

참여자들은 노숙을 하면서 자신의 삶이나 자신의 성격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노숙의 원인과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지한다. 참여자들은 ‘건강상태가 돌아오니까 욕심이 생긴다’, ‘다시 한 번 해 보아야겠다’, ‘나에게 희망이 있을까?’, ‘나도 한번 해보자, 이제 희망을 갖고 해보자’고 말하면서 노숙에서 벗어나고픈 바람을 갖게 된다. 참여자들은 삶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데, 즉 가족을 이루고 싶은 소망과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으며, 국가의 몇몇한 시민이 되고 싶은 바람을 갖게 된다.

따라서 노숙인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즉 “인생의 막다른 상황에서 노숙에 접어들며, 삶의 꿈을 버리며, 삶의 의미를 놓아버리고, 나태하

고 얽매이지 않는 노숙생활에 빠져버려 벗어나기가 힘들며, 외부의 세계와는 담을 쌓거나 의도적으로 관계를 회피하여 고립된 상태에 놓이면서 인간다움을 상실한다. 하지만 다시 일어서고 싶은 생각을 가지며, 남과 같은 평범한 삶을 살고픈 소망을 가지는 등 노숙에서 벗어나고픈 바람을 가진 삶"인 것으로 나타났다.

## 논 의

본 연구참여자들이 노숙생활을 하면서 가진 경험은 삶의 의미를 놓아버림, 얽매이지 않는 삶에 빠져버림, 외부세계로부터의 고립, 인간다움의 상실, 노숙에서 벗어나고픈 바람 등의 주제로 나타났다. 각각의 주제는 서로 관련되어 있었으며, 포괄적으로는 참여자들의 노숙생활의 경험을 구성하고 있었다.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참여자들은 부딪힌 삶의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시도해보지만, 다 실패하고 삶을 포기하고자 하지만 자살도 하지 못한 인생의 막다른 길목으로 몰린 상황에서 노숙생활로 접어들게 되었으며,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발판이 없으며, 더 이상 추락할 수 없는 인생의 최악의 밑바닥 상태에 놓이게 되어 철저한 무력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국의 노숙인을 대상으로 삶의 경험을 연구한 선행연구[18]와 청년 노숙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5]에서도 노숙인이 인생의 밑바닥으로 추락하며 무력감을 느낀다는 보고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이와 같이 노숙인이 더 이상 발을 내디딜수 있는 여지가 없는 극한 위기 상태에 놓이게 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발판이 없어 무력감에 빠져버리므로, 노숙인이 자활을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줄 수 있는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참여자들은 주로 경제적인 파산으로 가족이 해체되거나 가족의 경제적인 피해에 대한 우려로 노숙을 선택하게 된다고 하였다. 여성 노숙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19]에서는 부모의 학대, 이른 나이에 결혼, 배우자나 파트너의 폭력으로 가출하여 노숙하게 된다고 보고하여 차이가 있었다. 이에 여성 노숙인을 대상으로 삶의 경험을 연구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고, 차별화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반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여자들은 자유로운 노숙생활에 익숙해져 안전하고 안락함이 보장되는 쉼터나 시설이 있지만 그러한 기관에서 준수해야 하는 어떤 기준이나 규정에 얽매는 것이 어려워 노숙생활에 빠져버린다. 또한 무료급식소를 전전하면서 끼니를 해결하고 잠을 재워주는 곳을 찾아다니는 생활을 하며 자신이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어 나태함에 익숙해져서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싫어하거나, 일을 시작해도 버티지 못하는 등 얽매이지 않는 삶에 익숙해진다. 이는 선행연구[11]에서 노숙인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센터나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그 단체에서 진행되는 시스템에 순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다시 노숙상태로 돌아가게 된다고 보고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한편 주거시설에 입소하다가 다시 노숙생활로의 전환과 관련된 위험요인으로 노숙인이 구조화되거나 감독이 있는 환경이나[19],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는 환경[20]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한바 있다. 이에 노숙인의 사회로의 재통합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이들이 자신이 노력한 결과로 얻게 되는 결과에 건강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문화나 규준에 순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둔 중재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노숙인의 회복과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요인을 파악하는 연구와 회복된 노숙인의 노숙으로의 재발과 관계가 있는 위험요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노숙인의 사회통합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여자들은 외부 세계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하고 세상과 담을 쌓게 되고, 가족과의 만남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노숙인이 된 자신이 부끄럽고, 가족에게 피해를 줄까봐 의도적으로 가족과의 연락을 회피하는 등 외부세계로부터 고립된다. 이는 선행연구[19,21]에서도 노숙인들이 사회적인 연결고리로부터 멀어지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된다고 보고한 것과 유사하다. 이와 관련하여 Lee와 Kim [22]은 정상적인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주된 사회적 관계망이 주변 노숙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면서 건강하지 않은 노숙문화가 형성되고 이에 적응하게 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노숙의 장기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경계해야 하는 현상이다. 하지만 노숙인이 회복되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등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하며, 또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거나, 반대로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심리적, 정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등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갖기 시작한다[21]. 이에 일차적으로 노숙인의 손상된 자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이들이 사회로부터 벗어난 건강하지 않은 노숙문화에 익숙해지고 사회적인 고립이 심해지기 전에, 사회적인 일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사회단체나 사회적인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건강한 외부인과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참여자들은 노숙생활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을 술로 해결하

는 것이 반복되면서 술에 의지하게 된다. 또한 노숙생활을 지속하면서 뻘뻘해지고, 양심을 상실한 사람으로 변화한다. 또한 외부에서 자신을 노숙인으로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을 느끼면서 서러움을 느끼고 상처를 받는다. 참여자들은 자신만의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며, 잠을 편안히 잘 수 있는 집이 없어 하루하루 잠잘 곳을 찾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는 등 점점 인간다움을 상실한다. 이는 노숙인의 삶에 있어서 하루하루 생존하는 것이 중요한 삶의 목적이며, 단지 기본적인 욕구 해결에만 삶의 관심이 집중되어 인간으로서의 삶이 지닌 고유한 특성이나 존엄성이 상실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10,23]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Dunleavy 등[24]은 노숙인이 하루하루 삶이 불확실하고 그날그날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어 노숙인의 안녕상태를 해친다고 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선행연구[20]에서는 알코올이나 물질남용이 노숙으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위험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 사용으로 신체적으로 몸이 망가지는 경험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적 상황에서 노숙으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Hinton 등[25]은 미디어에서 노숙인을 비도덕적이고 위험하다는 이미지로 노숙인에 대한 낙인화를 조장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Nathaniil 등[26]은 일반인들은 노숙인을 노숙인이 된 아픈 사람이 아니라 아픈 노숙인으로 간주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노숙인에 대한 편견없는 관심이 요구되며, 일반 대중을 위한 홍보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참여자들이 자신만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이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사생활 보호가 보장되지 않음을 뜻한다 [19]. 최소한의 사생활을 지킬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은 노숙인의 삶을 더욱 황폐화시킬 것이다. 이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숙인을 위한 지원체제나 쉼터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참여자들은 노숙하면서 자신의 삶이나 성격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노숙의 원인과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지하게 된다. ‘건강상태가 돌아오니까 욕심이 생긴다’, ‘다시 한번 해 보아야겠다’, ‘나에게 희망이 있을까?’, ‘이제 희망을 갖고 해보자’고 말하면서 노숙에서 벗어나고픈 바람을 갖게 된다. 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데, 즉 가족을 이루고 싶은 소망과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으며, 따뜻한 국가의 한 시민이 되고 싶은 바람을 갖게 된다. 이는 노숙인이 회복으로 나아가는 첫 단계는 자신의 문제점에 대한 인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한 선행연구[21]와 유사하다. 이에 노숙인의 회복을 위해 자

기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 모색에 관심이 요구된다. 또한 참여자가 건강상태가 호전되면서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에 대한 욕구가 생긴다고 한 점은 노숙인의 건강정도는 회복에 중요한 요인이며[5] 기본욕구 충족이 회복을 촉진시킨다는 연구[27]와 맥을 같이 한다. 즉 노숙인의 회복을 위해 일차적으로 기본욕구 충족과 건강상태 회복이 중요하며 이어서 심리 및 정서적인 면이나 영적인 면에서의 회복에 초점을 둔 중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노숙인의 안녕상태에 초점을 둔 선행연구는 노숙인이 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회복이며, 회복과정에 들어서게 되면 무언가를 해보려는 동기가 생기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심도 있는 자각을 하며 현재의 노숙생활에 대한 걱정을 하며 변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지한다고 보고하였으며[24], 노숙인의 회복이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찾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된다[27]는 연구보고와 맥을 같이 한다. 이에 노숙인이 회복과정에 들어설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자기 가치감을 느낄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중재개발이 필요하다.

참여자들은 본 연구결과를 취약하고 고 위험 상태에 있는 노숙인의 삶에 대한 지식 및 정보를 제시하는 측면에서 교육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노숙인의 관점에서 노숙인의 삶을 설명하는 이론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 이론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가 노숙인의 요구도를 사정하고 회복과 사회통합을 도울 수 있는 중재방안을 개발하는데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 실무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K 지역에서 운영하는 노숙인 지원센터를 방문한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다른 노숙인의 삶에 적용하는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의 참여자는 모두 남성으로 여성 노숙인의 삶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여성 노숙인의 삶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 결론

본 연구는 한국에서 노숙인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경험을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탐색하고자 하였다. 노숙인들은 인생의 막다른 상황에서 노숙에 접어들며, 차츰 외부의 세계로부터 고립된다. 하지만 노숙에서 벗어나고픈 회복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즉 노숙인들의 삶은 좌절과 무력감, 고립감과 희망, 열망, 회복에 대한 바람 등이 서로 혼합되어 있는 복잡한 삶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노숙인의 삶을 편



견 없이 바라보는 것이 요구되며, 이들의 사회로의 재통합과 자활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국가 및 사회적인 차원에서 노숙인에 대한 지원체계의 마련과 홍보가 필요하다.

##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 of interest.

## REFERENCES

1. Park SI, Kim S.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nger and functional health of homeless 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4;44(4):361-370. <https://doi.org/10.4040/jkan.2014.44.4.361>
2. Lee AY, Kim JW. The effects of factors related to homelessness experience and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on the self-efficacy of the homeles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2012;33:21-43.
3. Ministry of Health & Welfare. Welfare projects of the homeless in 2016 [internet]. 2016 Mar [cited 2016 Dec 10]. Available from: [http://www.mohw.go.kr/front\\_new/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page=1&CONT\\_SEQ=331232](http://www.mohw.go.kr/front_new/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page=1&CONT_SEQ=331232)
4. Ministry of Health & Welfare. A white paper on health and welfare in 2015. [internet]. Seoul: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6. Oct [cited 2016 Dec 10]. Available from: [http://www.mohw.go.kr/front\\_new/jb/sjb030301vw.jsp](http://www.mohw.go.kr/front_new/jb/sjb030301vw.jsp)
5. Kim HK, Lee OJ. Lived experience of difficult times for young adult street homeless - application of Parse's human becoming research method.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2011;63(2):31-56.
6. Kim ET, Kang DJ. The possibility of non-formal humanities education program to help the homeless support themselves.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2012;18(3):197-226.
7. Crawley J, Kane D, Atkinson-Plato L, Hamilton M, Dobson K, Watson J. Needs of the hidden homeless-no longer hidden: A pilot study. *Public Health*. 2013;127(7):674-680. <https://doi.org/10.1016/j.puhe.2013.04.006>
8. McQuiston HL, Gorroochurn P, Hsu E, Caton CL.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recurrent homelessness after a first homeless episode.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2014;50(5):505-513. <https://doi.org/10.1007/s10597-013-9608-4>
9. Han YR, Yoon HS. Health status and health care system of homeless shelter resi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014;28(3):536-552. <https://doi.org/10.5932/JKPHN.2014.28.3.536>
10. Hauff AJ, Secor-Turner M. Homeless health needs: Shelter and health service provider perspective. *Journal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014;31(2):103-117. <https://doi.org/10.1080/07370016.2014.901072>
11. Drury LJ. From homeless to housed: caring for people in transition. *Journal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008;25(2):91-105. <https://doi.org/10.1080/07370010802017109>
12. Ku IH, Kim SY. Entrance into homelessness in Korea: cause and proces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2012;46(4):264-293.
13. Hyeun SW, Choi HK. An analysis of the roots of homelessness.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2008;20(4):1153-1180.
14. Kim SH. A comparison of Korean and Japanese homeless people: An examination on 'older homeless'. *Seoul Studies*. 2010;11(1):139-159.
15. Creswell JW.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s*. 1st ed. London: SAGE; 1997. 424 p.
16. Colaizzi FU.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392 p. (Valle RS, King M, editors. *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17. Sandelowski M. The problem of rigor in qualitative research. *Advances in Nursing Science*. 1986;8(3):27-37.
18. Smith J, Bushnaq H, Campbell A, Hassan L, Pal S, Akpadio S. Valuable lives: capabilities and resilience amongst single homeless people [internet]. London: Metropolitan University; 2008. November. [cited 2016 Dec 10]. Available from: [https://england.shelter.org.uk/\\_data/assets/pdf\\_file/0010/147187/GP\\_Briefing\\_A\\_Long\\_Way\\_from\\_Home\\_Mental\\_Distress.pdf](https://england.shelter.org.uk/_data/assets/pdf_file/0010/147187/GP_Briefing_A_Long_Way_from_Home_Mental_Distress.pdf)
19. Burlingham B, Andrasik MP, Larimer M, Marlatt GA, Spigner C. A house is not a home: A qualitative assessment of the life experiences of alcoholic homeless women. *Journal of Social Work Practice in the Addictions*. 2010;10(2):158-179. <https://doi.org/10.1080/15332561003741921>
20. O'Connell MJ, Kaspro W, Rosenheck RA. Rates and risk factors for homelessness after successful housing in a sample of formerly homeless veterans. *Psychiatric Services*. 2008;59(3):268-275. <https://doi.org/10.1176/appi.ps.59.3.268>
21. Collins SE, Jones CB, Hoffmann G, Nelson LA, Hawes SM, Grazioli VS, et al. In their own words: content analysis of pathways to recovery among individuals with the lived experience of homelessness and alcohol use disorders. *The International Journal on Drug Policy*. 2016;27:89-96. <https://doi.org/10.1016/j.drugpo.2015.08.003>
22. Lee AY, Kim KW. The effects of factors related to homelessness experience and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on the self-efficacy of the homeles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2012;33:21-43.
23. Randall G, Britton J, Brown S, Crag T. A long way from home: Mental distress and long-term homelessness. Good practice: briefing. London: Shelter; 2008 December.
24. Dunleavy A, Kennedy LA, Vaandrager L. Wellbeing for homeless people: A Salutogenic approach. *Health Promotion Inter-*



- national. 2012;29(1):144-154.  
<https://doi.org/10.1093/heapro/das045>
25. Hinton T, Evans N, Jacobs K. Healthy hostels: A guide to promoting health and well-being among homeless people [internet]. London: Crisis Health Action; 2001. April. [cited 2016. Dec 10]. Available from:  
[http://www.crisis.org.uk/data/files/publications/Healthy Hostels\\_full.pdf](http://www.crisis.org.uk/data/files/publications/Healthy%20Hostels_full.pdf)
26. Nathaniel S, Wells S, Perini A. Healthcare for the homeless: a big Issue? 2008 [cited 2016 Dec 10]. Available from:  
<http://www.thelancetstudent.com/legacy/2008/10/24/healthcare-for-the-homeless-a-big-issue/>
27. Henwood BF, Derejko KS, Couture J, Padgett DK. Maslow and mental health recovery: A comparative study of homeless programs for adults with serious mental illness. *Administration and Policy in Mental Health*. 2015;42(2):220-228.  
<https://doi.org/10.1007/s10488-014-0542-8>